

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	<h1>보도실명자료</h1>	2017. 5. 12(금)	
		배 포	인사청문회 준비단 대변인 양홍석 (Tel. 02-3145-6221)
* 엠바고 : 즉시 사용			

이낙연 국무총리 지명자 아들 병역면제 관련 설명

- 이낙연 국무총리 지명자는 아들이 병역면제에 이르게 된 경위를 다음과 같이 상세히 밝혔음
- 아울러 병역면제 판정 이후에도 아들이 '입대할 수 있도록 해달라'고 병무청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노력을 한 과정을 공개하였음

1. 아들의 병역면제 판정 경위

- 1999년 12월 23일 : 고교 2학년 겨울, 운동 중 최초 어깨 탈구 발생. 이후 수시로 어깨 탈구 발생
- 2001년 08월 06일 : 대학 1학년 때 징병신체검사 결과 부비동염으로 3급(현역입대) 판정. 신체검사 직후 대학 1학년을 마친 후인 2002년 봄에 입대할 계획 아래 자원입대를 신청했음
- 2001년 12월 31일 : 운동 중 큰 사고로 심각한 어깨탈구 재발생
- 2002년 01월 07일 : 사고 일주일 후인 세브란스 병원진료 받음. 진료 결과에 따라 2월19일 수술을 받기로 결정됨
- 2002년 01월 23일 : '3월 19일 입영하라'는 입영통지서 수령
- 2002년 02월 19일 : 예정대로 세브란스병원에서 어깨 수술 받음

- 2002년 03월 09일 : 입영을 12일 앞두고도 수술 상처가 아물지 않아 치료를 더 받은 뒤 입대하기 위해 서울지방병무청을 방문하여 입영연기를 신청함(활액낭염 및 건초염 7급, 1개월 내 재검받기로 함)
- 2002년 04월 07일 : 재검 결과 5급판정 받음(견갑관절 재발성 탈구)
- 2002년 05월 10일 : 군 면제 판정을 받았지만 ‘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복무하게 해달라’ ‘신체상태 때문에 현역 복무가 어렵다면 공익근무요원으로라도 복무하게 해달라’는 내용으로 병무청 중앙신체검사소에 탄원서(이낙연 명의)를 제출
- 2002년 05월 17일 : 중앙신체검사소에서 정밀신검을 받은 결과 5급 판정을 받음(견갑관절 재발성 탈구)

2. 아들의 입대를 위한 추가 노력

- 이낙연 지명자 가족은 아들의 입대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였으나 규칙상 어렵다는 판정 결과에 따라 결국 국방의 의무를 다하겠다는 희망이 무산되었음
- 2002년 5월 10일 : 이 지명자의 아내는 아들의 병역면제를 바라지 않아 ‘습관성 어깨 탈구를 치료하고 입대할 테니 입영을 연기해달라’고 아들과 함께 병무청을 방문해 하소연했음. 그러나 일주일 후에 있었던 정밀신체검사에서 5급 판정을 받아 군 입대를 하지 못하게 됨
- 2002년 05월 10일 : ‘아들이 치료를 받은 후 현역으로 입대할 수 있도록 해달라’고 병무청에 요청한 당일 이 지명자는 ‘아들이 치료와 재활을 거쳐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입대하게 해주기 바라며 현역 복무가 어렵다면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할 수 있게 해달라’는 내용의 탄원서를 병무청 중앙신체검사소 운영관 앞으로 제출함. 중앙신체검사소장은 열흘 후인 5월 20일자로 ‘5월 17일에 실시한 신체검사 결과 5급 판정을 받아 현역복무나 공익근무요원 복무가 가능하게 해달라는 귀하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’고 알려줌